

# ‘청소년 공부방’ 존폐 위기

도내 시·군 23곳… 정부 예산지원 전면 중단

아동센터 전환 5곳 불과, 목포·완도는 폐쇄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과 탈선예방 역할을 토통히 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 전면 중단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의 청소년 공부방은 12개 시군에서 23곳을 운영 중인데이 중 14곳은 관련 단체가, 9곳은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4억여원이 국비와 시·군비로 각각 50%씩 지원됐으며 강사배치에 도비 1억6천900만원이 지급됐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교공부를 마친 청소년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까지 배치해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청소년 공부방은 성격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도록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운영비 미지급에 따른 일선 시·군 의견을 조사한 결과 23곳 중 12곳이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위탁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기자 dok2000@

또 나주시와 장흥군은 시·군 지원비만으로라도 청소년공부방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해남과 완도는 청소년 밤과 아카데미로 전환해 기능을 지속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부 뜻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목포와 완도는 아예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일단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 강사 배치 지원 예산을 운영비로 바꿔 청소년공부방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이 불가피해 2012년 이후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외에는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에

서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



## 이른 봄… 농사준비에 바쁜 노부부

강진군 칠량면 송촌마을 들녘에서 한 노부부가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보리눈에 퇴비를 뿌리고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대류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10일부터 추위질 것으로 예보했다. <강진군 제공>

## ‘산불방지’ 지리산 일부 탐방로 통제

### 4월말까지 노고단~장터목구간 등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봄철 건조기인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25개 ‘개방 탐방로’를 제외한 국립공원 산림지역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불방지 기간중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리산 노고단~장터목구간의 종주 능선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주 탐방로 및 보존의 가치가 높고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입산통제하며, 산불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탐방로는 개방한다.

개방 탐방로는 ▲화엄사~노고단 고개~노고단 정상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 ▲장터목~천왕봉 ▲중산리~법계사~천왕봉 ▲직전마을~피아골 대피소 ▲쌍계사~불일폭포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 ▲고기리~고리봉 등 25개 구간(93.4km)이다.

남부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스스로가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061-783-9100)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교통사고 확 줄이겠습니다”

화순경찰, 무사고 100일 달성

나주경찰, 사망사고 절반으로

화순과 나주경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사고 100일 화순경찰=화순경찰서(서장 한재숙)는 지난 7일 ‘무사고 100일’ 달성을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

화순경찰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시설물 집중 개선

▲능주~이양간 국도 29호선 시설보강 ▲차선 규제봉·경보등 설치하는 한편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정을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나주경찰, 교통사고 전쟁선포=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올해 중



점 치안 목표로 ‘교통 사망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주경찰은 지난해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48명이 사망, 도내에서 사망하고 접유율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올해 대대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경찰은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음주운전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나주경찰, 교통사고 전쟁선포=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올해 중

/충북취재본부=최승렬·정철현·정운수기자

## 전남 맞춤형 일자리사업 전국 최다 선정

### 광양만권 조선산업 등 4건 총사업비 13%인 11억여원 지원

광양만권 철강 조선산업과 F1 자동차 경주대회·스포츠 레저산업 인력 양성 등 전남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시도간 경쟁방식에 의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건이 선정돼 국비 1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고용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총 86억원중 전남이 11억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13%를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지원 확정된 사업은 ▲광양만권 철강·조선산업 인력개발사업 ▲스포츠·레저산업 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사)전남 고용포럼에서 제안한 일자리 창출 포럼사업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등이다.

황기연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열악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전남 섬 산림가꾸기, 정부 14억 지원

전남도는 역점사업인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이 올해 정부 시행사업으로 반영돼 전국 차지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14억원을 지원받아 완도, 진도, 신안 등 섬지역을 대상으로 숲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완도, 진도, 신안지역 섬들

의 경우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해 숲이 파괴돼 해안경관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 부족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사)생명의 숲과 ‘산림을 미래산업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문가들을 민·관·제3자에게 전달해 섬 지역의 난대림 산림가꾸기 추진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09년 기계장비를 이용한 구덩이 파기, 캐토, 물주기 등 특수 공법을 개발해 신안군 암태면 일원 6ha에 후박, 가시나무 등 5000그루를 심어 95% 이상을 활착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김지기자 dok2000@

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문가들을 민·관·제3자에게 전달해 섬 지역의 난대림 산림가꾸기 추진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09년 기계장비를 이용한 구덩이 파기, 캐토, 물주기 등 특수 공법을 개발해 신안군 암태면 일원 6ha에 후박, 가시나무 등 5000그루를 심어 95% 이상을 활착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김지기자 dok2000@

## 영암 실내체육관 3월부터 이용하세요

### 레크레이션실·휴게실 갖춘 농촌형 복합시설



영암군 관계자는 “삼호읍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단역 근로자들의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120여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체육시설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레크레이션실, 휴게시설 등을 갖춰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 전남 계약심사제로 939억원 예산 절감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심사와 설계심사 등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828건 93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지난 시공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구매 2000만원의 모든 사업에 대해 원가계산을 세밀히 분석해 주요 공정의 누락이나 오류로 부실한 설계가 있는 경우 증액·보완해줌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공공사업 802건 1조

2330억원을 심사해 7.1%에 해당되는 8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원가심사 대행을 통해 61억원(26건)을 절감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시군으로 확대 실시한 시군 계약심사를 통해 96억원(1314건)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전 시군에서 일제히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원가심사 우수기법의 전수와 주기적 추진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해 시군 계약심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기자 dok2000@

### 대인동삼일부동산

#### 애플지식센터

#### 금산공인중개사

#### 현대공인중개사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금당 공인중개사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내시내 전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높아지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럿인 간판을 대상으로 상가를 대표적인 것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할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 02-223-1772 휴 011-602-2332

광주내시내 전지역 건물 50m 지점

010-2441-1610

H.P.011-601-5354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서구 마루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능협7억 김대중간변선 인근, 교회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쌓은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한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600평)정도, 상업, 주거3종, 준주거, 자연녹지.

상촌동 나대지,㎡

서구 쟁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당수익률,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일부 분할 가능.

산막동 과수원 (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감나무 과수원, 낭향, 황룡강변, 관리사 및 창고 허가득,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당 15만원.